

2019년 2월 27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Quant Analyst 최길수 02) 3787-5294/gilsu@kiwoom.com

미 증시 약보합

파월 연준 의장, “정책 변화 결정에 서두르지 않을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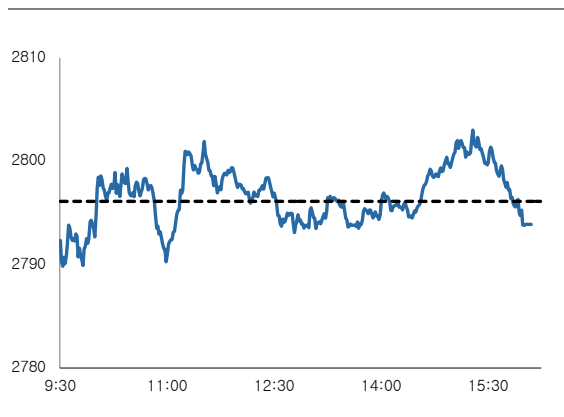
종목 장세 속 기술주 반등

미 증시는 미-중 무역협상 낙관론이 선반영된 가운데 주택지표 부진으로 하락 출발했지만, 커뮤니케이션스, IT 업종 중심의 반등으로 낙폭을 줄이며 소폭 하락 마감. 장 초반 미국 주택착공건수와 주택 홈디포 실적 및 가이던스 부진으로 주택시장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며 하락세를 보임. 하지만, 세계 최대 모바일 박람회 MWC에서 공개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신제품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기술주 중심으로 반등, 지수는 약보합 마감(다우 -0.13%, 나스닥 -0.07%, S&P500 -0.08%, 러셀 2000 -0.71%)

금융시장에서 주목했던 파월 연준의장의 상원 증언은 예상수준으로 나오면서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함. 파월 연준 의장은 이날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해 증언. 파월은 “현재 경제는 건조하다”라고 언급하며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냄. 다만, 지난 2개월간 경제지표가 둔화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고 중국과 유럽의 성장 둔화가 미국의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언급해 하방 리스크에 대한 경계감도 내비침. 특히 1)미-중 무역협상, 2)브렉시트 협상에 주목해야 할 것이라 지적. 향후 통화정책 변화에 대해서 기존의 “인내심”을 가지며 상황을 “신중히” 지켜볼 것이라는 스탠스를 유지했으며 추가적으로 GDP 대비 부채비율을 줄일 필요성을 언급, 이를 위해 정부 지출을 줄이거나 세입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함.

파월 의장은 상원 의원들로부터 중립금리, 연준의 대차대조표, 백악관 관련 질문들을 받음.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연준이 생각하는 목표 물가에 대해서는 연준 내부에서 재점검하고 있다고 언급했으며 관련 논의는 올해 말까지 신중하고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이라 밝힘. 파월 의장이 생각하는 적합한 연준의 자산규모에 대해서는 대략 1조달러에서 소폭 웃도는 수준이라고 밝히며 이는 상황에 따라 시장이 필요한 버퍼(Buffer)의 개념이라고 보면 된다고 언급. 마지막으로 트럼프 정부 관계자들과 통화정책에 관련된 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 드릴 말이 없다”라고 발언.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종류(%)	Close	D-1	지수종류(%)	Close	D-1
KOSPI	2,226.60	-0.27	홍콩항셱	28,772.06	-0.65
KOSDAQ	747.09	-0.44	영국	7,151.12	-0.45
DOW	26,057.98	-0.13	독일	11,540.79	+0.31
NASDAQ	7,549.30	-0.07	프랑스	5,238.72	+0.13
S&P 500	2,793.90	-0.08	스페인	9,227.20	+0.25
상하이종합	2,941.52	-0.67	그리스	692.84	+0.88
일본	21,449.39	-0.37	이탈리아	20,459.59	+0.11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부동산 & 건설 장비 부진, IT 강세

홈플러스는 4Q18 매출과 순이익이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며 1.7% 하락. 백화점 체인 메이시스는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으로 상승. EPS 2.37달러 동일매장매출 0.7%를 기록. 케터필러의 경우 UBS의 2단계 하향 조정보고서가 부각되면서 장중 3.7% 하락. UBS는 건설 및 에너지 섹터 장비 사업 실적이 2019년 고점이라고 분석. 애플의 부품사 AAC테크놀러지는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실적과 가이던스 영향으로 14.04% 하락. 수주 감소로 1Q19 영업이익이 크게 하락할 것이라 시사.

마이크로소프트는 MWC에서 방위, 헬스케어, 건축 산업 등에 활용 가능한 홀로렌즈를 공개하며 0.78% 상승.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날 Azure Kinect라는 AI 카메라와, Azure Spatial Anchor이라는 MR 개발자 플랫폼도 최초로 공개.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1.50%	대형 가치주 ETF	-0.22%
에너지섹터 ETF	-1.09%	중형 가치주 ETF	-0.45%
소매업체 ETF	0.73%	소형 가치주 ETF	-0.80%
금융섹터 ETF	-0.30%	배당주 ETF	-0.20%
기술섹터 ETF	0.21%	변동성 ETF	0.00%
소셜 미디어업체 ETF	-0.11%	대형 성장주 ETF	-0.04%
인터넷업체 ETF	-0.04%	중형 성장주 ETF	-0.28%
리츠업체 ETF	-0.20%	소형 성장주 ETF	-0.74%
주택건설업체 ETF	-0.54%	신흥국 고배당 ETF	-0.27%
바이오섹터 ETF	-0.41%	신흥국 저변동성 ETF	-0.28%
헬스케어 ETF	-0.36%	하이일드 ETF	0.20%
곡물 ETF	-0.18%	물가연동채 ETF	0.14%
반도체 ETF	-0.65%	Long/short ETF	0.24%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482.79	-0.28	-0.93	+4.98
소재	349.35	-0.59	+1.74	+5.09
산업재	639.47	-0.45	+0.65	+9.53
경기소비재	872.28	+0.15	+0.36	+3.72
필수소비재	558.24	+0.04	-0.55	+4.67
헬스케어	1,067.19	-0.32	-0.35	+4.89
금융	438.93	-0.24	+0.08	+1.96
IT	1,245.45	+0.20	+2.08	+9.07
커뮤니케이션	154.61	+0.13	+0.56	+5.16
유틸리티	286.04	-0.15	+1.00	+6.14
부동산	214.92	-0.22	-0.96	+3.53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종목 장세 지속, 북-미 정상회담에 주목

MSCI 한국 지수는 0.29% 하락, MSCI 신흥국 지수는 0.34% 하락했다. 야간선물은 1.05pt 상승한 288.80pt 로 마감했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14.7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3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일 한국 증시는 종목별 차별화된 모습이 보다 강해지는 모습을 보이며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였음. 반면 외국인은 현선물 모두 순매수.

미-중 무역협상은 일정 부분 주가에 선반영된 것으로 판단됨. 그 결과 국내시장 또한 등락을 반복하였음. 다만 마이크로소프트의 상승과 애플 부품사의 부진 등 관련해 종목 장세 성향은 보다 강해질 것으로 전망.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주택착공건수 전월대비 11.2% 하락

미국 12 월 주택착공수는 전월 대비 11.2% 감소하면서 예상치(+1.3%)를 하회. 2 월만에 최저치로 하락(계절조정 107 만 8 천채). 11 월 착공수는 3.2% 증가에서 +0.4% 증가로 하향 조정되면서 주택 건설 둔화 흐름 시사.

2 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지수는 131.4pt 를 기록하면서 전월치(121.7)와 예상치(124.7)를 모두 상회. 지수는 11 월, 12 월, 1 월 하락세에서 반등에 성공. 컨퍼런스보드는 소비자 사업들과 노동시장이 우호적인 점이 지수 반등 요인이었다고 설명.

2 월 리치몬드 연방 제조업지수는 16pt 를 기록하며 전월치(8)와 예상치(-2)를 모두 상회. 부분적으로 출하(-8→12), 신규 수주(-11→19), 그리고 수주 잔량(-21→-7) 크게 증가한 데 힘입어 반등에 성공.

독일의 3 월 Gfk 소비자신뢰지수는 10.8pt 를 기록하면서 예상치에 부합. 부분별로 경기기대지수의 하락 흐름은 지속(10.7→4.2), 구매의사는 하락(57.6→53.6)했지만, 기대소득(59.9→60.0)은 견조하게 발표. Gfk 는 "최근 몇 주간 독일 경제가 침체기로 빠져드는 것을 느끼고 있다"라고 언급.

상품 및 FX 시장 동향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 축소되며 파운드화 상승

미 달러화는 미국 경제지표가 혼재된 결과를 보인 가운데 연준의장이 상원 은행청문회에서 비둘기적인 스탠스를 보이면서 소폭 하락. 미국 2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지수는 131.4로 전월과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지만 12월 주택착공건수가 전월대비 -11.2%로 감소. 파월 연준의장은 상원 은행청문회를 통해 미국 경기가 견고하지만 하방 리스크를 함께 언급했으며 금리 인상 속도가 느리게 진행될 것임을 재확인함. 파운드화는 영국 메이 총리가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 브렉시트 기한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달러 대비 강세

국제유가는 전일 트럼프의 '유가 너무 높다'라는 발언에도 OPEC은 감산을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소폭 상승. 언론 보도에 따르면 OPEC 관계자가 원유 재고가 5년 평균 수준으로 떨어질 때까지 감산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힘. 연말까지 감산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되면서 국제유가의 추가 하락은 제한됨. OPEC은 작년 미국의 이란 제재를 앞두고 공급 축소 우려로 생산량을 일시적으로 확대한 바 있음. 하지만 당시 유가가 급락한 경험을 감안, OPEC은 미국과 상관없이 감산 정책을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55.50	+0.04	-1.68	Dollar Index	96.064	-0.36	-0.47
브렌트유	65.21	+0.69	-1.87	EUR/USD	1.139	+0.28	+0.43
금	1,328.50	-0.08	-1.21	USD/JPY	110.58	-0.43	-0.05
은	15.926	-0.01	-0.88	GBP/USD	1.3255	+1.21	+1.48
알루미늄	1,906.00	0.00	+2.69	USD/CHF	0.9999	-0.08	-0.11
전기동	6,480.00	0.00	+2.55	AUD/USD	0.7186	+0.27	+0.29
아연	2,719.00	0.00	+2.33	USD/CAD	1.3171	-0.12	-0.30
옥수수	376.00	-1.05	-0.53	USD/BRL	3.7491	+0.05	+0.74
밀	468.25	-0.95	-4.88	USD/CNH	6.6869	+0.06	-0.87
대두	917.00	-0.86	+0.27	USD/KRW	1118.60	-0.21	-0.85
커피	96.80	-3.05	-4.02	USD/KRW NDF1M	1114.75	-0.07	-0.62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2.638	-2.51	+0.36	스페인	1.136	-2.30	-6.90
한국	1.995	-2.00	-0.20	포르투갈	1.429	-3.30	-7.40
일본	-0.026	+0.90	+0.20	그리스	3.713	-5.30	-4.20
독일	0.118	+1.00	+1.30	이탈리아	2.701	-7.00	-8.50